

소록도 인상기

延大 看護學科 講師

李 仁 子

문둥이의 나라로 알려진 소록도를 다녀온 것은 62年 1月 제법 추운 때였다.

우리 一行 배정이 湖南線 列車에 오른 것은 저녁 8時, 모처럼 구경하자던 湖南 풍경은 돌아올때에 보기로 기대하고 우선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車內엔 스틸이 들어와서 추운줄은 몰랐으나 매우 불편한 하룻밤이었다.

날이 흰하게 밝아서야 順天驛에 到着하였다. 소록도 병원에 電話連絡을 하니 院內에 어떤 事故가 생겼으니 빨리 오라는 것이었다. 부북이 수백리 길을 택시로 달리기로 했다. 고흥군을 지나 녹동이란 곳에 닿은것이 午後, 우리나라의 最南단 다도해의 입구라고나 할까.

밝고 푸름을 東海에 비교할순 없어도 역시 바다를 대할 때 바다 느끼는 풍요함과 낭만같은 南海라서 다를리 없었다.

거기서 바라보이는 섬이 바로 소록도라는 말을 듣자 지금까지 상상으로 복잡하던 머리속이 러전래 오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 통통배에서 첫 발을 소록도 땅에 내디딜때 야릇한 흥분을 어쩔 수 없었다.

나무는 별로 없는 하나의 山같은 모양으로서 全南 南海上에 位臨한 고흥반도

서쪽 賓城灣口에 있는 이섬은 海岸線의 길이가 13 km, 해발 45.8 m라는 生感보다는 큰 것 이었다. 사방의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예이놓듯한 차거운 바람은 아니나 일찌기 쓰여보지 못한 강풍이었다. 먼저 자그마한 事務室같은 판자집이 눈에 띄었다. 반가이 맞아주는 그들은 지금은 음성인듯한 환자들이었으며 난로가르 안내해 주면서 곧 철차가 울테니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初行이었으나 같이가신 L선생과 C선생은 상당히 친숙한 모양이었다. 잠시후에 철차를 타고 일마를 달리는 동안 서먹하고 낯선 섬의 분위기가 어느듯 視覺에 익숙해 지는듯 했으나 시골서 서울구경 처음은 사람모양 병신스레 두리번 거렸다. 이섬은 들로 나뉘여서 한쪽엔 一般社會에서 그 아픔답지 못한 전설과 함께 버림받은 인간들 약오천명이 살고 또 다른 한쪽엔 이들을 治療하고 看護하는 醫療員, 事務職員 약 오백명과 그의 家族들이 살고있는 것이었다.

그섬의 중심지대라고 볼수있는 곳에 제법 규모를 갖춘 큰 二層建物이 보였는데 이것이 바로 소록도 병원인 것이다.

이곳에 나요양원이 생긴것은 1916년에 자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했으며 그 당시 환자는 60명 정도로 수용 할수 있었다. 그것이 차차 발전하여 현재에는 약 6,000명을 수용할수 있는 대규모로 확장됐고 환자의 입원 수속은 보사부 알선에 의한다.

病院전불 앞에는 잘 다듬어진 아름다운 잔디며 사철나무, 그리고 이봄모든 큰 나무들이 마치 봄철에 잎이 나올 때 볼수 있는것처럼 연두색에서 초록색에 가까운 잎으로 덮여있어서 南國의 겨울을 그대로 느낄수 있었다. 아무튼 그렇게 잘 꾸어 놓은 정원이 있는 公共建物は 처음이었다. 二層에 올라가니 평안도 사투리의 병원장이 반가이 맞아주며 工場에서 일하던 환자 인부가 事故로 죽어서 장례식을 하려다가 工 박사님 오신다는 消息을 듣고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운동장으로 가자는 것이었다.

숨 들릴 사이도 없이 차를 타고 民間人地帶를 지나 절망을 境界로 양쪽에 조그만 건물이 있어서 한쪽엔 정상인 보호가 있고 다른 한쪽엔 환자보호가 서있는 것을 보며 海邊을 따라 달렸다.

환자지대를 달릴때 가끔 사람들이 보이는데 하나같이 입이 찌그러지고 우그러진 손을 흔들며 반기고 있었다. 운동장에 도착하고 보니 가장 아름답다고 생겼던 病院안은 비교도 안되었다. 넓은 운동장이 있고 그위에 돌계단을 약 스포츠허계를 묘하게 쌓아 올렸는데 주위엔 나무들과 잔디가 포화될정도로 절경을 이루고 있어서 마치 그림에보던 외국어느곳에 와 있는듯한 착각을 할 지경이었다. 환자들이 모여있는 앞에 전막속에는

花環으로 裝飾해 놓은 관이 있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은 거의가 환자였는데 국민학교생들, 實業高等學生들, 大學生들, 그다음에 아낙네와 남정네들로 질서 정연히 서있었고 친탁 주위엔 환자아닌 사람들도 몇명 있었다. 그런중에 一行이 뒹굴하니 모두들 기다렸노라는 시선을 던지며 환영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많은 환자들 대해 보기는 처음이고 주위 모든 것이 색다른 것 뿐이어서 그때의 감상을 무어라고 말할수는 없으나 그 무리속에 끼어들지 않은 自身을 藐視하고 새삼 感謝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조의문 낭독에 이어서 환자들로 구성된 合唱團의 芻歌와 이를 伴奏하는 밴드부가 있었다. 비록 입이 삐뚤어지고 팔과 손가락이 제대로의 形態를 具備하고 있지는 못해도 그입과 손을 통해 들리는 나팔소리와 트럼펫 소리는 모두가 뼈에 사무치는 전에 들던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다. 그들을 쳐다보며 장송곡을 들으려니 자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죽은 사람이 애써려워서 보다는 같은 感情을 지닌 사람들이 어찌다가 그런病에 걸리어서 후악해져버린 그들의 괴로움이 전해오는듯한 아픔에서였다. 죽은 환자는 남자였는데 가장 목놓아 우는 여인이 그의 아내인 것 같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원장에게 돌아와 지책을 찍으면서도 이상하게도 장례식의 광경이 머뭇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그들은 우리社會에서는 누구하나 相對해 주기는 고사하고 만나면 꿈지가 뽀뽀해서 피하기 바쁘다. 그러나 그들끼리는 오히려 정상인을 매하는 이상의 親和성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死에 대한 愛慕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 강한지도 모른다.

× ×

다음날 우리는 미리 連絡해둔 患者地帶에 갔다. GIV 라는 BCG 와 비슷한 結核豫防藥인데 그것을 이환자들에게 注射하여 BCG 보다 더 効果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서였다. 그리하여 환자지대에 가니 역시 병원 건물이 있고 그 管理나 檢査는 모두가 환자들 自治制로 하고 있었다. 드디어 어느 職員의 案内로 처음 간곳이 實業高等學校 였는데 施設이 잘 되어 있어서 不便을 느끼지 않을 정도였다. 몇 실명의 환자 학생들이 敎室에 모여있는 것을 보니 역시 무서운 인상들이었다. 짐지에 黴이 떨어져서 옮겨질 것 같은 기분에 두렵운 生覺조차 있었으나 注射을 놓기 시작했다. 拒否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못 들은척하고 끝까지 놓았다. 名單에 있는 숫자 보다는 적었다. 다시 國民學校로 가서 注射하러 갔으나 先生(선생도 모두 환자였다)부터가 싫어하는 態度였다. 간신히 몇실명 注射하고는 다시 宿所로 돌아왔다. 오후에는 L선생 特別講演을 할 計劃대로 강당으로 갔다. 수백명의 學生과 一般人이 모여 있었다.

어디를 가나 恐怖心이 앞섰으나 그들의 뒷자리에서 같이 講演을 듣기로 했다. 처음에는 떠들석 하던 그들이 講演內容에, 사람은 누구나 날때부터 人間의 權利를 갖고 태어난다. 이것은 아무도 뱉지 못하는 것이며 따라서 保存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權利를 保存하기 위하여는 各者 自己의 할 바를 해야 하며 이르기 위해서는 남의 힘에 의해 살 것이 아니라 自力으로서 自己 生存을 開拓해 나가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一例

로 五馬島 工事도 여러분들이 自給自足할수있는 農土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여러분의 손으로 힘껏 땀아서 거기서 거두는 곡식으로 살아갈때 權利가 維持되는 것이다라는 말에 박수 갈채를 보내 주었다. 또한 비록 細菌이 파먹어서 손가락의 일부 혹은 기타 皮膚의 一部가 달아났다 할지라도 生覺하는 能力은 또한 學問을 探究할수있는 思考力을 뱉어 가지 못했다. 따라서 工夫할수 있으며 그배서 여러분의 精神의生活이 얼마든지 潤澤해질수 있으며 여러가지 檢査過程을 거쳐 治療하면 반드시 完治될 것이니 부디 이말을 記憶하기 바란다라는 등등의 말을 하였다. 이講演이 끝난후 여기저기서 많은 質問이 있었다. 강연은 듣고 理解가 된 그들은 肅然하여 주사를 놓아 달라고 말을 내밀어서 結局엔 空患者에게 檢査할 수 있었다. 沈黙은 金이요 雄辯은 銀이라는 옛말이 떠올랐으나 역시 人間은 서로의 意思가 傳達되고 理解를 할 때에 비트소 協同精神이 發揮됨을 알았다. 講演을 들은후 患者들의 얼굴에서의 歡喜의 表情을 영영 잊을 것 같지가 않았다.

오는 길에 환자집을 몇 군데 訪問 하였다. 방이며 부엌이 一般社會에서 볼수있는 것과 차이가 없었고 마당은 넓고 空氣가 좋아서 病도 쉽게 고쳐질 것 같았다.

만약에 人間世에 첫 걸음을 이룬 곳에서 始作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必然코 그런 形態를 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도 자기비둘끼리 대하며 지나는 가운데 스스로가 그런 좋은 곳에서 살도록 선택 받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대로 그 生活속에서 滿

문을 열고 人生을 즐길수 있을 보급자리가 아니겠는가.

× ×

다음날은 먼저 이야기한 五馬島 工事場으로 가려고 배에 올랐다. 약 20분간 갔더니 工事場 近處인 큼직한 섬에 이르렀다. 얇은 산을 넘어서 드디어 입지 鐵路를 놓고서 바위를 파내어 이것들을 나르는 患者들이 고였다. 모두가 患者였으며 監宿하는 몇 사람만이 一般人이었다. 이 공사는 高興郡 근처에 「五馬島」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여기를 連結하여 바다물을 막으면 여기서 생기는 農土가 3백3십만평이며 저수지, 주력지, 길을 제외하면 약 2백4십만평의 논이 된다. 이 땅은 5年丙에 비가와서 빗물에 찢기운이 씻겨서 내리고 나면 기름진 옥토가 된다고 한다. 고흥군과 섬 사이의 길이가 약 800m, 400m 와 250m를 막는데 이干拓工事의 2/3가 완료됐는데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니 어마어마했다. 이 땅이야말로 患者들이 定着하여 自給自足할 수 있는 땅이다. 아직까지는 나라의 保衛豫算의 거의를 이 환자들에게 주고 있으나 이工事が 끝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옛날엔 이런 환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한가운데로 버리고 가선 그대로 물에 던져 버렸다는 悲話도 있으나 生命의 價値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는 現代의 知性은 이를 容恕하지 않는다. 잘 떨어지지도, 自由로 움직이지도 않는 갈구리 같은 손으로 헤놓은 일을 보고는 그 어느 짓꾸전 神도 후회하리라.

그들은 떠나없이 生活意慾에 넘치는듯 보였으며 譚念뒤에 짙은 희망속에 살고 있는 것이었다. 보잘것 없는 물방울이 계

속 벌어져서 바위를 뚫는 것 처럼 작은 노력이 모여서 많은 사람에게 惠澤을 주고 희망을 안기워 주는 이 事業이計劃대로 하루 속히 成就되고 그들에게 祝福있기를 바라면서 이 곳을 떠났다.

그날 저녁 그곳 소왕국의 왕님같은 병원장님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게 그랫까지의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적어본다.

어느날 그 病院長任은 서울에 오셨다가 화장실을 구해갖고 가셔서 여자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것을 애기고 쓰지말아서 하루는 화장을 하고 나오라고 하였더니 코나 얼굴 모양이 찌그러진 데다가 부—즈도 빨강제칠하고 양쪽 볼엔 연지도 바르고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찌그러진 데 발랐으니 자연 位置도 그렸을 것은 당연한 結果이다. 그래서 원장님은 다시 비록 찌그러진 얼굴이나 相對방이 보았을때 그位置는 바르게 보이도록 화장을 하라고 하였더니 그다음엔 경찰로 位階만 독마로 하고 나온 모양은 차마 볼수가 없더라는 말속에 웃음과 울음을 동시에 터뜨리게 했다. 또 언젠가는 모 市에서 배구시합이 있었다고 한다. 陰性환자 중에서 선수들 뽑아서 여기에 出戰 시키기 위하여 그市에 가서 旅館에 묵으려고 하니 가는 여관마다 謝絶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원장 자신이 그들과 같은 房에서 같은 行動을 해보이면서 다나은 사람들이니 安心하고 받아 달라고 理解를 시켜서 간신히 한 旅館에서 시합이 끝날때 까지 같이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이곳엔 여자환자가 남자환자보다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대단한 人氣

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도 美 측은 美人이란 말은 쓰인다. 다만 그 美의 尺度가 一般社會에서와 다를 뿐이다. 卽 正常人과 누가 가장 가까우냐에 따라서 美를 評價하게 되는 것 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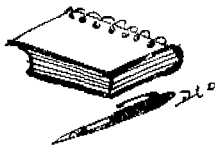
이곳에는 우편국, 풍나들공장, 두부공장, 발전소, 방아간등 모두가 卽모는 저지탄 生活必需品을 提供해 주는 기관이 있다. 그리고 特殊한 곳은 嬰兒院과 未感兒 保育所이다. 未感兒, 말하자면 환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간난아이를 隔離 保護하여 키르는 영아원인데 수십명의 아이들이 어느 獨逸女性 指導下에 우리나라 여자 몇명과 일 하고 있었다. 모두들 영양상태가 좋았으며 아직까지 그들 중에서 나병이 발생된 例는 거의 없다고 한다. 未感兒保育所에는 이와 같은 아이들

이 자라서 學齡期가된 아이들을 敎育指導하고 있는 곳인데 역시 수십명 어린이들이 있었다.

여기에 자기주권이 있다는 것을 아는 환자들이 밤이되면 물리 넘어와서 아이들을 만나려고 애쓰다가 들키면 그대토 가는 경우도 허다 하다고 한다. 天倫을 어찌할수 없는 것이 人間의 本能인성 싶었다.

환자들은 國家의 援助도 있으나 그곳 농토에서 生産되는 것 으로서 살며 양제, 양든 기타 채소등이 많이 난다. 한때에는 順天地方 國會議員 출마자의 常務의 큰 비중이 이들에게 있었다고 한다. 이 같이 소록도라는 일개 섬으로 된 王國인 듯한 인상을 받았다. 여기서 보낸 며칠은 나에게 理解와 새로운 경험의 페이지를 마련해준 귀한 시간들이었다.

육 아 와 간 호



귀여운 자녀들의 이해와 올바른 지도를 원한다면, 아동의 심리를 다루고 성장발육을 자세히 기록한 이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Gladys Sellew
Marry F. Pepper 공저
홍 옥 순 역

장래에 어머니가 될분이나 이미 되신분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재산!

模造 · 高級 洋裝 · 菊版

값 일반가 300원
학생가 210원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발행